

10월은 문화의 달

“부처님 가르침 찬탄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⑮

想用功修道 先要一個堅固信心
 상용공도도 선요일개견고신심
 信爲道元功德母
 신위도원공덕모
 無論作甚麼事 沒有信心 是作不成功的
 무론 작삼마사 무유신심 시작불호적
 我們 要了生死脫 尤其要一個堅固信心
 아문 요로생사탈 우기요일개견고신심
 佛說 大地眾生 皆有如來智慧德相
 불설 대지중생 개유여래지혜덕상
 只因妄想執著 不能證得
 지인망상집착 불능증득
 又說了種種法門來 對治眾生的心病
 우설 료중종법문래 대치중생적심병
 我們 就當信佛語不虛 信來生皆可成佛
 아문 취당신불어불허 신중생개가성불
 但我們爲 甚麼不成佛呢
 단아문위 심마불성불니
 皆因未有如法下死功夫
 개인미유어법하사공부아

비유하자면 알다시피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데 그대가 두부를 만들지 않는다면 콩이 스스로 변해 두부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또 간수를 여법하게 넣지 않으면 두부는 만들어 지지 않는데 만약 법답게 넣고 끓이고 찌꺼기를 걸어내고 알맞게 간수를 넣으면 결정코 두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修道亦如是 不用功固然 不可以成佛
 관도역부여시 불용공고인 불가이성불
 用功不知法 佛也是不能成
 용공불어법 불이시불능성
 若無如法修行 不證不悔 決定可以成佛
 약능어법수행 불퇴불회 결정가이성불
 故我們應當深信 自己本來是佛
 고아문응당심신 자기본래시불
 更應深加依法修行 決定成佛
 경중심신의법수행 결정성불

도를 이룸도 또한 이와같이 해서 힘쓰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고 여법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
 만약 법답게 수행하여 물러나지 않고 귀우질 일 없다면 결정코 성불할 수 있다.

생각건대 공부에 힘써 도를 이루는 데는 무엇보다도 견고한 신심이 제일이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이다.
 뭐라고 논할것도 없이 신심이 없으면 이는 좋지 않다.
 우리들이 생사문제를 해탈하자면 더

“우리들은 뭇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나 부처님 말씀 믿어 여법하게 수행하라”

우기 견고한 신심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모든 중생에 다 여래의 지혜덕상이 있지만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득하지 못한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갖가지 법문을 설해 놓은 것은 중생의 마음병을 맞게 다스리고자 함이라 하셨다.
 우리들은 마땅히 부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고 믿어야하며 중생은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뭇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 여법하게 공부를 하지 못한 까닭이다.

고로 우리들은 마땅히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깊이 믿어야 하고 또한 법에 의지해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리라는 것을 깊이 믿어야만 한다.

永無懈怠 盡實無 無人法
 영가선사설 증실상 무인법
 利用滅除 阿耨業
 찰나일 귀어비업
 若將妄語誑眾生 自招放舍 棄少幼
 약정망어광중생 자초발설진사겁
 他老人家 豈能 要堅定 後人的心
 타노인가자비 요견정후인적심
 故當如此 宣講
 고발여차평서

영가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법의 본래면목을 증득하면 인상, 법상이 없고 찰나에 아비지옥의 업도 없어진다.
 만약 망념된 말로 중생을 속였다면 내 스스로 발설지옥에 떨어져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들의 겁세원을 보내게 될 것이라 하였다.
 저 선사의 자비는 뭇 사람의 신심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니
 고로 이같이 엄정한 서원을 발한 것이다.

龍眼

송암스님 (봉원사 주석)

약력

- 1914년 서울 봉원사서 출생
- 19세부터 율학스님으로부터 영산재의식 사사됨
- 73년 11월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지정
- 현재 영산재 후진양성과 각종 시연회를 이끌고 있으며 봉원사 주석



“은세상 곳곳에서 부처님 찬탄하는 소리 하루도 끊이질 않아야 일체중생 성불 해탈”

살아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법과 하나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도 나에게서 복이라면 큰 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더러 법과란 말을 들어 봤을 것이고 시연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의식을 하나보다”하고 지나쳐 버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영산재는 부처님의 집요한 영산회상을 상징화하는 불교만의 독특한 의례입니다. 영산회상이란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 부처님 설법을 듣는 대중들의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화 한다는 것은 충만한 부처님 회상의 법묘와 환희심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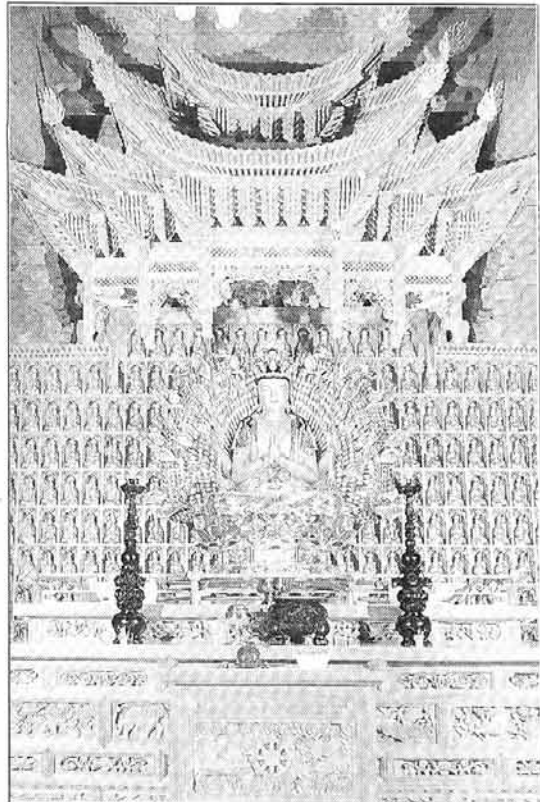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 재의식이 행해졌고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산재는 우리 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불자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운 절차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영산재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산재를 보게되면 여러분은 두가지 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동공발심(同共發心)과 동출극락(同出極樂)이 그것입니다. 영산재는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식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의식의 주관자(재를 청한 사람) 모두가 한마음이 될 때 진정한 의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법회에서 동참자들의 마음이 각자으로 흩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물론 재의 주된 목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영산재는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요한 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공덕이 어찌 말자에게만 미치지겠습니까. 참여대중 전체의 공

덕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공덕에만 얽매일 것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은 수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죄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 죄업을 소멸하지 않고는 성불을 할 수 없습니다. 성불의 원을 세운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죄업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 죄업소멸의 발심이 없이는 성불의 발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영산재는 지나온 인연의 죄업을 씻고 다가올 인연의 선업을 닦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49재를 지내고 천도재를 지내는 것이 영산재인 줄 알고 계셨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일체 중생의 죄업을 소멸시키고 일체중생의 선업을 선양하는 경건한 의식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

는 그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닦는 수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공발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발심을 하는 것이 이 재의식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발심 속에 선망부모의 천도가 들어가고 나의 마음을 밝히는 서원이 들어가고 후손과 일체의 생명이 복락을 누리길 바라는 열원이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심은 곧 공부로 이어져야 합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고 깨달음의 종교라 합니다. 깨달음은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는 데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밝히려는 의지만 공으로만 무수한 것 아니니까, 법에도 현상의 생명과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상, 천불조상,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 사 무 실 (02) 738-8447~8
- 공 장 (051) 804-8907
-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